

IMF사태를 낙농산업의 체질개선과 발전의 기회로 삼자



유철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지금 우리나라 낙농업은 IMF 한파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지난 12월 한달사이에 배합사료가격이 두차례나 인상되어 우유생산비가 큰폭으로 뛰었고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면서 늘던 우유 및 유제품의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

낙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원유가격을 상향 조정하였다. 그러나 낙농가의 걱정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배합사료 가격 뿐만 아니라, 다른 자재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환율이 또 변동하게 되면 이들 가격이 다시 들먹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IMF 사태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낙농업 여건은 해마다 악화되어 왔다. 그 이유는 원유가격은 95년 10월 조정 이후 변동이 없었으나 그 동안 조사료를 비롯한 사료비와 가축분뇨처리 부담증가, 노동력 부족과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등 생산비는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품질 원유생산을 위한 위생관리수준 향상요구가 커지면서 더 많은 착유우의 도태로 경영수입 감소, 유질 개선을 위한 사양관리비 증가되어 낙농경영은 어려워진 농가가 많고, 특히 근년에 와서는 젖소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모든 낙농가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

지난해 12월 조사 결과에 의하면 낙농가수는 1만 7천호, 젖소 사육 마리수는 54만 4천마리로 일년 사이에 낙농가수수는 무려 17.6%나 감소하였고 사육마리수도 1.3% 감소하였다. 착유우 가격도 연중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 왔다. 앞으로는 도시근교 지역에 있는 소규모 낙농가들을 중심으로 낙농가수와 젖소두수도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양질의 조사료 부족과 배합사료 가격 인상으로 두당 산유량이 크게 증가하리라 기대 할 수도 없다.

”

젖소가격의 하락은 쇠고기 유통에 있어서 품종별 투명성을 제고하여 고품질 한우고기의 생산을 유도하고, 젖소고기의 한우둔갑을 막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체등급제 실시와 소매단계의 한우·육우·젖소고기 구분판매 실시등 여러 가지 유통개선 대책이 추진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정부에서는 낙농생산자 단체의 젖소고기 전문판매점의 설치 지원 요구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여 오고 있고 산지가격 안정을 위하여 수매를 하기도 하였으나 젖소가격의 회복에는 역 부족이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젖소 송아지 가격이 불과 수 만원대로 하락하여 낙농가들이 허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타결로 개방되기 시작한 유제품 시장이 96년 7월에는 완전 자유화되었고 이에 따라 값싼 유제품이 국내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낙농경영의 불안은 고조되어 왔다.

작년 수입 유제품의 소비량은 원유로 환산하면 47만 4,635톤이며 이는 전년과 비교하면 2.4배 증가한 물량이다. 유제품 수입의 자유화로 제과 제빵업체등 분유 등 주요 유제품 실 수요자들은 국산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 유제품을 수입하여 사용하였고, 유가공업체들도 국산원유를 외면하면서 낙농가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

이러한 낙농업의 위축추세는 최근에 발표된 가축통계 자료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IMF 체제가 시작되면서 경기침체로 소득이 감소하고, 가계지출이 줄어 들게 되면 우유 및 유제품의 소비도 위축되어 낙농과 유가공업체의 침체도 우려된다.

그러나 요즘과 같이 높은 환율수준이라면 IMF 사태는 낙농가에 따라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환율이 불과 몇 달 사이에 크게 뛰어 수입 유제품 가격

66

유가공업체들은 시유소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국산원료를 사용한 유제품의 제품차별화를 위한 기술 개발 노력과 이들 제품의 소비확보를 강화하여 국산원유의 수요확대에 중심적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생산자 단체들은 개별 낙농가들을 수시로 접촉하면서 보다 강도 높은 기술 및 경영지도, 정보를 제공하고 낙농가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99

이 전보다 두배이상 비싸지게 되니, 외국으로부터 분유등 유제품이 수입될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분유등 유제품 수입가격이 국내산 원유를 사용하여 만든 유제품보다 비싸지게 되었기 때문이며, 이에따라 유제품의 수입은 자유화되었으나 수입은 될 수 없다.

따라서 유업체들은 낙농가들이 생산한 원유를 사용하여 유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따라 낙농가들은 원유를 보다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환율이 1,600원일 때 국산 및 수입유제품가격 비교하여 보면, 탈지분유 수입가격은 kg당 9,720원으로, 국산 공장도 가격 6,500원보다 50%나 높다. 다른 국산 유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크게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따라 유업체들이 과거 시유를 중심으로 호황을 누릴 때 경쟁적으로 원유 확보에 나섰던 때와 같이 이제는 시유뿐만 아니라 국산 원유를 원료로하여 유제품을 만들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제과 제빵업체들이 환율 상승으로 비싸지게된 수입분유 이용이 크게 줄고 상대적으로 저렴하여진 국산 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유제품의 원료로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유소비의 대부분은 시유형태로 소비가 될 것이다. 특히 소비자들이 식품에 대한 안전성과 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는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신선하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우유를 생산하는 한 소비시장은 가까이에 있다. 따라서 낙농가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유생산을 위하여 더욱 사양관리와 질병예방에 노력하게 되면 원유의 판로는 보장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낙농가 뿐만 아니라 유업체, 생산자단체, 정부의 역할

66

만시지탄이 있지만 낙농진흥법 개정안의 통과로 이 업무는 낙농진흥회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낙농진흥법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낙농진흥회에서는 IMF 체제하에서 예상되는 환율의 변동 등 여건변화에 보다 유연성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99

도 크다.

정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을 보다 하향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예측 가능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 모두가 열망하는 사항이다. 잘 알려진대로 이미 유제품 수입은 자유화되어 있다. 외환위기가 시작되면서 외환 수급에 따라 하루에도 환율은 제한없이 자유로이 변동하게 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자유화될 것으로 전망되게 됨에 따라 앞으로 당분간은 환율 수준 예측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우유 및 유제품의 수급안정화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조속히 서둘러야 할 일은 양질의 조사료 확보 대책이다. 정부가 국내 조사료자원 개발에 등한히 하여온 결과 상당수의 낙농가들은 알팔파 등 양질의 조사료를 외국에서 수입해 급여하여 왔다. 그러나 낙농가들은 환율상승으로 조사료 수입가격은 두배가량 비싸게 되어 사실상 수입조사료 이용이 어렵게되었다. 양질의 조사료 부족으로 산유량의 감소, 원유의 품질 저하, 젖소의 경제수명 단축등으로 낙농경영에 타격은 크다. 정부의 대책에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IMF 시대에 양질의 조사료 확보에 낙농가들의 자구적인 노력도 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 유업계, 생산자 단체들은 국산원유를 원료로 하는 시유 및 유제품이 수입유제품이나 수입원료사용 유제품과 구별되도록 제품차별성 등에 대하여 소비홍보를 강화하여 국산원유의 소비저변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은 이 IMF 사태를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체질 개선과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하여 낙농가, 유업계, 단체 및 정부 관련자들의 새로운 각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㉞